

전남도-다국적 기업 “화순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외국계 바이오기업 7곳 MOU 기반시설 이용, 기술·인적자원 교류 김 지사 “바이오 캠퍼스 반드시 유치 백신산업특구, 바이오산업 허브로”

전남도와 화순군은 지난달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젝트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전남 유치를 위해 외국계 바이오 장비기업 7개사와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참여 기업은 ‘독일 싸토리우스’ ‘머크’, ‘미국 싸이티바’ ‘퍼킨엘머’, ‘이탈리

아 이마’, ‘스위스 뷰키’, ‘프랑스 비오메리’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시 협조기관 참여, 실습동의 우수 장비 공급 노력, 전남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협력과 인적자원 교류 등이 다.

참여 기업은 미국, 유럽 등에서 생명과학 분야 연구는 물론 의약품 생산과 분석,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이 넓고 경험이 풍부해 전 세계 바이오 실습·실습 장비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자체 교육센터를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협약으로 전남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구축되면 우수 장비 보급은 물론 교육생을 위한 원어민 강사 파견과 교육생 현지 파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 백신산업특구에는 4개 바이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교육센터가 있다.

바이오 인력 양성 협의체 기관과 다국적 바이오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인프라) 이용, 강사 지원 등 기술·인적자원 교류에 협력할 방침이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바이오 인력양성사

업으로 올해 공모가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가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 국가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22일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기관이 참여하는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외국계 바이오 장비기업과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바이오 인력 양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GC녹십자와 메신저리보핵산(mRNA) 시생산시설 투자유치협약에 이어 세계적 바이오 장비기

업들과도 협약이 이뤄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반드시 유치해 백신산업특구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전남 유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내 바이오 인력 양성 기관, 대학과도 손잡고 교육과정 협력과 바이오 융합학과 개설 등 지역 바이오 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항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AI 발생 위험”... 전남도, 특별방역대책 기간 한달 연장

위기단계 ‘심각’ 유지

전남도가 3월 말까지 한 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지난 1월10일 이후 49일간 AI 추가 발생이 없어 소독 등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역체계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지속적인 철새 유입과 가금농장 이동 제한 해제에 따른 입식농가 증가 등 추가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선제 조치에 나섰다.

이에 전남도는 위기단계를 현행과 같이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도 기존처럼 가동한다.

또 검사 주기 단축, 전체 가금(닭·오리)에 대한 출하 전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도 지속 유지한다. 기존에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10건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단축된 일제 입식·출하 기간(육계 5일·오리 당일)도 유지한다.

방역대해지역에 신규 입식하는 오리 농장은 계열사, 도, 시·군, 검역본부가 3단계 점검을 하고, 825명의 농장별 전담관을 통해 소독과 5대 핵심 방역수칙 전파 체계를 지속한다.

축산차량은 3월 말까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하며, 오염원 제거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 집중 소독기간’ 3월까지 한 달 연장 운영한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광복회원, 단체·기관장 등이 1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독립의 꿈, 희망의 봄’을 주제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청년창업특례보증·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광주시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지역 청년창업자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시중 7개 은행과 2023 청년창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 20억원의 10배 수인 200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대상은 광주 지역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청년창업 기업으로, 협약을 맺은 7개 은행을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창업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최대 1년간 연 3%의 이자를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상담예약 뒤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벤처기업과 창업 7년 이내 광(光)관련 기업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4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시설·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2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술보증기금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지 기자

광주시,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당 100만원

광주시가 노후경유차 폐차와 매연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2일부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대당 100만원씩 총 188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1톤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이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24일까지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차량등록증 사본·신분증 사본·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2일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박상지 기자

광주시 19번째 월요대화 강 시장, 전문가들과 논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 통합 브랜드 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19번째 월요대화에서는 강기정 광주 시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주시 도시브랜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김병희 서원대학교 교수(광고홍보학), 송진희(재)광주디자인진흥원장, 류재한 전남대학교 교수(불어불문학과), 한희원 미술관장(서양화가), 이무용 전남대학교 교수(문화전문대학원), 김양현 전남대학교 교수(철학과) 등 전문가와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정원석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김병희 서원대학교교수는 “도시브랜딩은 사람들 머릿속 인식을 점유해 가는 과정으로 광주에 있는 5·18정신, 인문학적 자산, 문화도시, 무등산, 양림동, 비엔날

레 등 강점들을 모아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 검증,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산재된 광주의 가치를 감싸는 하나의 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진희(재)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도시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5·18과 무등산, 빛,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상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며 “혁신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담아 광주의 비전과 5대 목표를 아우르는 브랜드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재한 전남대학교 교수는 “도시 브랜드는 도시만이 갖는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며 빛고을·산업·예술, 고향·향기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내일을 만드는 빛향을 제안했다.

또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

의 가치를 지속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무용 전남대학교 교수는 고객(방문객), 신뢰(공감·지속성), 차별화, 도시가치, 실현(전담조직)의 5가지 도시브랜드 원칙을 설명하고, 하나의 분야가 아닌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5·18정신·인공지능·축제·문화도시 등 광주가 가지고 있는 분야별 브랜드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양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광주만의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통합브랜드 개발과 함께 예술가·문필가·의인 등 과거로 통하는 광주의 자신들을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광주다움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맛있는 음식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광주만의 가치 광주다움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 측면이 부각된 광주의 통합 브랜드를 만들겠다”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화

생존율 높고 상품성 우수한 수정란 1만cc 어가에 분양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역 특화품종

인 참조기와 부세 수정란 1만cc(600만마리)를 생산해 도내 종자 생산 어가에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3월부터 분양하는 수정란은 영광지원 서해특산시험장에서 선발 육성해 2~3년 동안 관리해온 참조기, 부세 어미에서 채

란한 것이다.

양식 시 생존율이 높고 상품성이 우수해 어가의 새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정란 분양 어가에서 안정적 종자 생산이 이뤄지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참조기·부세 종자를 입식한 양식어가에 대해 입식부터 출하까지 성공적인 양식이 이뤄지도록 살펴볼 계획이다. 최항지 기자